



Everything Is Fine, 2021. Acrylic and collaged denim on custom relief panel. Installed : 183 x 328 cm | 72 x 129 in. Photo: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NICK DOYLE**  
*Everything Is Fine*

26 August - 1 October, 2021

Brand-name shaving cream, vending machines, everyday objects supersized à la Oldenberg... Nick Doyle's work is rooted in the strategies of Pop Art, especially in its use of recognizable imagery. Though much of Pop's frisson rests on a kind of playful ambivalence towards its subject matter—celebration or critique?—Doyle is primarily interested in the latter. He mines these familiar objects for their dark psychological undercurrents.

*Everything Is Fine* is the latest in the artist's ongoing inventory of the props of masculinity. A bowtie, an oxford shoe and the contents of a toiletry kit are just some of the personal effects that coalesce into a portrait of the kind of American everyman, nameless and plural, that Doyle wishes to examine and critique.

Doyle reveals the futility of male-identified objects—a suitcase and the rootless freedom it might represent is instead imbued with a quality of loneliness as it reveals its empty interior; the water cooler, a space to

**닉 도일**  
*Everything Is Fine*

2021년 8월 26일 - 10월 1일

유명 상표의 셰이빙 크림, 자판기, 올덴버그의 작품처럼 초대형으로 만들어진 일상용품 등... 팝아트의 전략에 기반한 닉 도일의 작품은 우리가 쉽게 인식 가능한 형상들에 초점을 맞춘다. 팝아트에 대한 전율은 대상에 대한 기념 혹은 비판을 기반으로 장난기 있는 양가성에 기초하지만, 도일은 주로 그 후자에 대한 관심이 깊다. 작품을 통해 그는 이 친숙한 오브제 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심리적 암류를 파헤친다.

전시 “Everything Is Fine”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소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도일의 작품 세계의 연장선이다. 나비넥타이, 신사화, 그리고 세면도구 세트에 들어있을 법한 내용물들은 도일이 탐구하고 비평하길 원하는, 익명이며 동시에 여럿인 일반적인 미국 남자들의 개인적인 모습의 한 부분인 것이다.

도일은 남성적으로 인식되는 오브제들의 무익함을 드러낸다. 여행 가방은 그것이 나타낼 법한 정처 없는 자유 대신 드러난 텅 빈 내부 속으로 고독함이 스며들어있다. 냉온수기는 그것의 위치가 의미하는 회사 속 모임과 경쟁을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ngs Get Out of Hand, 2021. Collaged denim on custom relief panel. 152 x 70 cm | 59 3/4 x 27 1/2 in. Photo: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congregate and compete at the office, sits depopulated and forlorn; a Swiss Army knife, peacocking its various instruments, partakes in an audience-less performance... All efforts at bravura seem doomed to fail.

Asphyxiating implements abound—nooses (two of them), the bowtie, a belt—as metaphors for the suffocating nature of this gendered ideal. For Doyle, masculinity's narrowness, its fear of expression and emotion, is tragedy-bound. At first glance, though, such readings may not be apparent. The objects are rendered flatly and without affect, like photographs at the scene of a crime, but much in the way evidentiary documentation speaks to a much bigger picture, so do Doyle's works.

Here, materials are not just a means to an end; they are endemic to the larger project at hand. Denim, Doyle's preferred material, calls forth a large swath of American history. Drawing on indigo's problematic importation from West Africa, its status as the defacto uniform of the working class and signifier of counter culture rebellion, denim is as insidious as it is iconic.

New to the artist's vocabulary of materials is vegetable-tanned leather. With the simple transposition of this saddle-making material to his art practice, Doyle summons the mythic figure of the American Cowboy. He manages the implied ruggedness of that archetype with conceptual finesse. In *Outlaw*, the limp arms of a cactus spill out of a wooden suitcase. A set of dangling handcuffs, securing the cactus to nothing, come to represent the receding horizon of the American West, specifically the freedom and escape it has historically represented but seldom delivered.



*One Foot Out the Door, 2021. Collaged denim on custom relief panel. 152 x 113 cm | 59 1/2 x 44 1/2 in. Photo: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의미하는 대신 홀로 항랑하게 놓여있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마치 공작새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고 있지만, 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은 없다. 고도의 예술적 기교를 보여주는 듯한 이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듯하다.

두 개의 올가미, 나비넥타이, 벨트 등 질식시키는 많은 도구가 성별화된 이상의 숨 막히는 본질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된다. 도일은 남성성의 편협함,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물론 작품의 첫인상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이 오브제들은 마치 범죄 현장의 사진처럼 감정 없이,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증거 서류가 더 큰 현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도일의 작품 또한 그러하다.

도일의 작품 속에서 재료는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크고 전반적인 그림에 부여되는 고유 속성이다. 도일이 선호하는 재료인 데님은 미국의 역사 속 많은 부분을 거론한다. 서아프리카에서의 인디고 수입 과정의 많은 문제와 사실상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반문화 운동의 기표로서 사용되는 데님은 상징성 있는 만큼 교묘하게 영약하다.

작가는 창작을 위한 재료로 베지터블 가죽을 새로 도입하였다. 안장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재료를 작품 속으로 끌어드린 도일은 이를 통해 미국 카우보이의 신화 같은 존재를 소환한다. 그는 개념적 기교를 통해 그들의 투박한 성향을 암시한다. 작품 'Outlaw'에서는 나무로 만들어진 여행 가방 속에서 선인장의 축 처진 팔이 쏟아져 나온다. 선인장을 구속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묶여있지 않은 한 쌍의 수갑은 점점 저가는 미국 서부의 모습, 특히 미국 서부가 역사적으로 상징했지만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던 자유와 도망을 상징한다.





*Surrender*, 2021. Wood, leather, brass, merino wool. 84 x 40 x 25 cm | 33 x 15 1/2 x 9 1/2 in. Photo: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No One Can Know*, 2021. Wood, leather, brass, stainless steel, bronze. 54 x 36 x 41 cm | 21 x 14 x 16 in. Photo: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Doyle contrasts the grandeur of the American imaginary with the humdrum of the everyday. *No One Can Know*, from the artist's ongoing *Executive Toy* series, captures the weary resignation of the office. The wooden sculpture, an animatronic office worker at his desk, is activated by a crank arm that sets the gears in motion. The mechanics of the sculpture are left visible, exposing both the technical complexity of the work and the soulless repetitiousness of labor. The figure taps his foot distractedly, turns his head away from a monitor and opens a drawer concealing a sleeping miniature of himself, dreaming and defenseless.

Despite the exhibition title's assurance that "everything is fine," a sense of disquiet runs through Doyle's vision of American life. Unassuming objects turn on a dime: an extension cord is fashioned into a noose, the glint of a razor blade entices, the image of a drain conjures a bottomless despair—all point to a deadly inevitability.

####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

For safety reasons, the exhibition will be open by appointment only until further notice. Please contact [seoul@perrotin.com](mailto:seoul@perrotin.com) to make an appointment.

도일은 일상의 단조로움과 상상 속 미국의 장엄함을 대조한다. 작가의 'Executive Toys' 시리즈의 신작인 'No One Can Know'는 지쳐 체념한 개인의 회사 속 모습을 보여준다. 손잡이를 돌리면 기어가 작동하여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을 닮은 나무 조각이 움직인다. 작품의 상세한 메커니즘은 사용된 복잡한 기술과 노동이 필요로 하는 영혼 없는 반복성을 보여주기 위해 훤히 드러나 있다. 사람 모습의 조각상은 주의 산만하게 발로 툭툭 바닥을 치며, 컴퓨터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려 서랍 속 무방비하게 꿈을 꾸며 자는 자신의 모형을 보여준다.

전시의 제목은 "모든 게 괜찮다"며 확신을 하지만 독일의 시선 속 비친 미국에서의 삶은 오히려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그의 작품 속 겸손한 모습의 물건들은 급선회한다. 멀티탭은 올라가미로 형상화되었으며, 면도날은 번뜩이며 날카롭게 유인하고, 배수구는 끝이 없는 절망을 표현하여 모든 물건은 모두 치명적인 필연으로 향해 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방문 전 [seoul@perrotin.com](mailto:seoul@perrotin.com) 으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 PRESS CONTACTS

**Juhee Kang**, Perrotin Seoul & Hong Kong  
juheekang@perrotin.com +852 9028 0757

**Soobin Bae**, Perrotin Seoul  
soobinbae@perrotin.com +82 2 737 7978